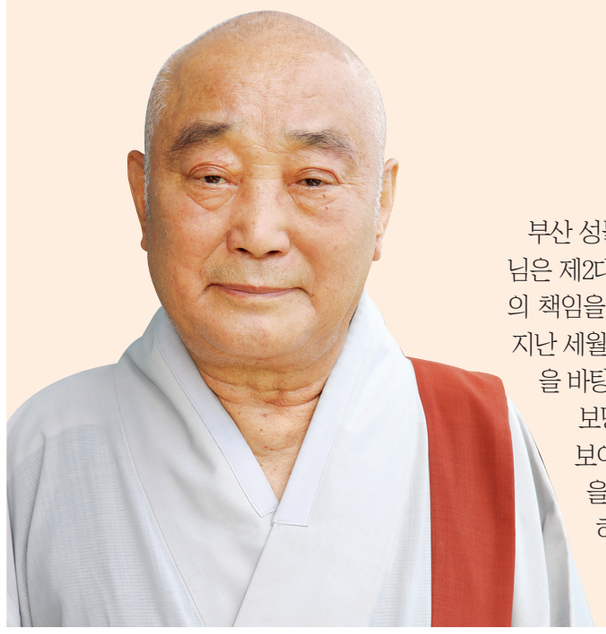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⑤ 법화종 어른스님을 만나다

법맥의 등불 잇고 화합의 100년 밝힌다

“화합은 공심으로 종단을 받드는 수행”



원로회의 의장 보명 스님

부산 성불사 주지이자 대한불교법화종 원로의장인 보명스님은 제2대 종정 노정공 스님의 상좌로, 종단의 법맥과 원로의 책임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스님은 지난 세월의 공덕을 되새기는 동시에, 법화종이 화합과 수행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명스님은 법화종의 80년을 단순히 흘러간 세월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묘법연화경의 일승묘법을 받들고 창종주 혜일정각 대조사의 원력을 계승하며, 수많은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이 법화종문의 법등을 지켜온 신심과 정진의 역사라는 것이다.

스님이 바라보는 종단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보다 종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를 불성을 지닌 존재로 존중하며, 종헌종법의 질서 안에서 화합할 때 종단의 내일도 밝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종단 원로를 대표해 화합 당부
“종도 화합과 전법 포교가 법화수행”

특히 보명스님은 화합을 단순히 서로의 입장을 적당히 맞추는 타협으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공심으로 종단을 받드는 것 자체가 수행이며, 수행이 빠진 화합은 오래갈 수 없고 화합이 없는 수행 또한 대중을 이롭게 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다. 원로회의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지난 역사를 바르게 돌아보고 후학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종단 어른들의 소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총본산 안정사가 수행과 포교, 사경과 신행, 교육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중심도량으로 더욱 장엄되기를 발원했다.

보명스님에게 창종 80주년은 지난 공덕을 회향하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점이다. 전국의 법화종도들이 각자의 도량과 삶의 자리에서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메마른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감로수가 될 때 법화종문의 법등도 더욱 밝게 이어질 것이라는 당부다.

“창종의 이름 품은 도량, 종단 회복의 날을 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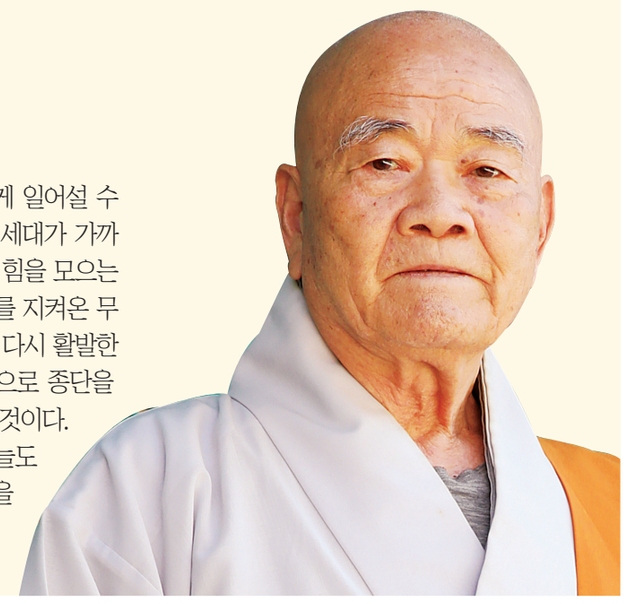
북한산 고양 무량사 무량 스님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무량사는 대한불교법화종 창종의 첫걸음을 함께한 서울 삼각산 무량사와 같은 사명을 지닌 도량이다. 창종 당시의 원력과 기억을 오늘에 되새기게 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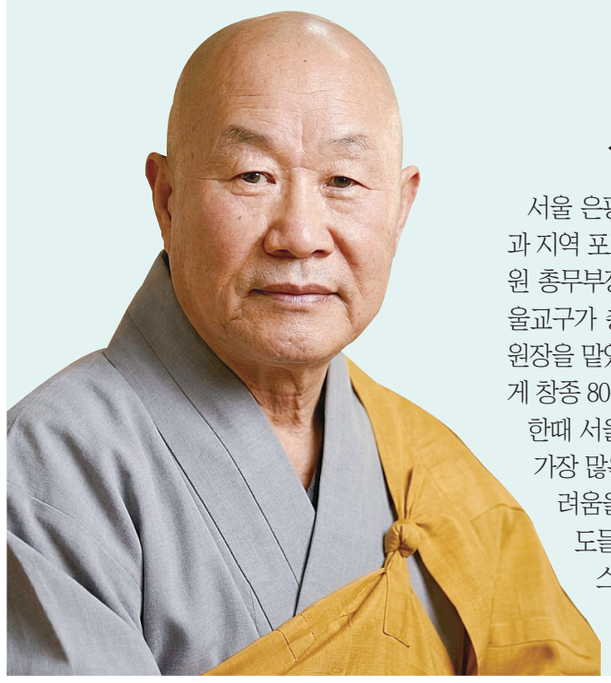
도량을 지키는 무량스님은 1980년부터 종단 소임을 맡아 총무원 국장과 부장직을 두루 거쳤으며,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과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총무원 종무행정에서부터 지역 교구와 일선 포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종단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온 스님은 법화종이 힘차게 뻗어가던 전성기와 이후 어려움이 깊어진 시기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다.

1980년부터 종무행정·교구·포교 일선…
법화종의 전성기와 쇠락 모두 지켜봐

창종 80주년을 맞은 무량스님이 가장 절실하게 꼽는 과제는 ‘포교의 회복’이다. 과거의 위상을 회고하는 데 머물지 않고, 각 사찰과 종도들이 다시 전법의 현장으로 나아가 법화경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전해야 종단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교, 다음 세대가 가까이할 수 있는 수행과 문화, 사찰과 종도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화합이 그 출발점이다. 평생 종무와 포교의 자리를 지켜온 무량스님의 서원은 소박하지만 간절하다. 법화종이 다시 활발한 포교 활동으로 생기를 되찾고,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종단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뒤 회향하는 것이다. 창종 도량과 같은 이름을 품은 고양 무량사는 오늘도 창종의 초심을 되새기며, 법화종의 다음 100년을 밝힐 전법의 불씨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다.



“제자리의 마음 회복할 때 종단도 다시 선다”



서울 흥창사 주지 혜암 스님

서울 은평구 진관동 흥창사는 오랫동안 수도권 법화 신행과 지역 포교의 맥을 이어온 도량이다. 혜암 주지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 등 종단의 주요 행정 소임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교구가 총무원 직할체제로 편입되기 전 마지막 교구종무원장을 맡았다. 법화종의 전성기와 쇠락을 모두 겪은 스님에게 창종 80주년을 맞는 소회는 남다르다.

한때 서울·경기교구는 종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가장 많은 스님이 활동하던 중심지였다. 그러나 종단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교구의 결집력도 약해졌고, 수도권 종도들이 함께 뜻을 모을 구심점 역시 희미해졌다. 혜암스님은 제주교구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듯 서울과 경기의 사찰과 종도들도 서로 연결돼,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스님은 장차 총무원이 다시 서울에 자리해 수도권 종도들을 잇는 중심축이 되고, 흩어진 사찰과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전법과 교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이는 과거의 외형을 그대로 되찾자는 뜻이 아니라, 법화종이 수도권 포교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미래 세대와 만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원이다.

총무원 소임 역임, 마지막 서울교구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도 다시 뜻 모으길”

혜암스님이 강조하는 종단 회복의 출발점은 ‘제자리의 마음’이다. 스님은 스님답게 수행과 전법의 본분을 지키고, 불자는 불자답게 신행과 보시·봉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종단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형식과 권위를 앞세우자는 말이 아니라,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하게 살아내자는 당부다.

흥창사 역시 이러한 가르침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다. 매년 은평구 진관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백미를 후원해오고 있다. 혜암스님은 지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창종 80주년은 혜암스님에게 지나간 영광을 돌아보는 데 그치는 기념일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의 종도들이 다시 뜻을 모으고, 총무원과 교구·사찰이 서로를 잇는 구심점을 회복하며, 스님과 불자가 각자의 본분을 되찾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은평구 진관동 흥창사는 오늘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그 회복의 씨앗을 묵묵히 가꾸고 있다.



